



'인간승리' 축제 시작됐다

제 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광주 7위, 전남 10위 목표 대장정

26일 개막하는 제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광주는 종합 7위, 전남은 10위를 각각 목표로 29일까지 4일간의 장정에 나섰다.

빙상·스키·휠체어 컬링 등 3개 종목에 3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금 2·은 1·동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해 지난해 9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7위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6회 대회 빙상 2관왕이었던 한성주(조선대·지적)는 이번에도 500m와 1천m에 출전, 3년 연속 2관왕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광주선수단은 26일 오전 9시 광주시청 광장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갖는다.

전남은 빙상·스키·휠체어 컬링 등 3

개 종목에 38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사상 첫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 선수단 중 13세의 최연소 선수인 유승협(순천팔마초·지적)이 빙상(500m·1천m)에서 전남에 첫 메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이승기(소림학교·청각)가 빙상 500m, 박현호(지체)가 빙상 1천m에서 각각 메달 사냥에 나선다.

'빙판 위의 체스'라고도 불리는 휠체어 컬링에서 55세의 전남 최고령 김종일의 8강 진출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66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서울·강원도·경기도 이전 등 3곳에서 분산 개최되며, 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아이슬레지하키·빙상·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 개·폐회식은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에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의 박주영(왼쪽)이 25일(한국시간)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랭피크 리옹과의 32강전에서 헤딩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머리로... 박주영 결승골 작렬

시즌 7호골... AS모나코 프랑스컵 16강 전인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뛰는 박주영(25)이 결승 헤딩슛으로 팀을 프랑스컵 16강에 올려놓았다.

박주영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랭피크 리옹과 프랑스컵 32강전에서 후반 32분 결승 헤딩골을 작렬, 팀의 2-1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정규리그 르망과 원정 경기에서 시즌 6호 골을 터뜨린 이후 1개월 만에 넣은 득점이다.

선발로 나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빈 박주영은 전반부터 활발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모나코의 공격을 주도했다. 전반 22분에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빼

앗아내 직접 페널티 지역 정면까지 몰고 간 뒤 오른발 강슛을 날리는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리며 가까스로 쳐내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기세가 오른 박주영은 전반 28분에도 상대 문전에서 헤딩슛으로 득점을 노렸으나 공이 살짝 뜨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선제골은 오히려 리옹의 차지였다. 전반 45분에 코너킥을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 에릭 블랑이 솟아오르며 머리로 받아 넣어 먼저 득점을 올린 것.

그러나 모나코는 후반 5분 만에 동점골을 넣으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5분에 네네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차 넣어 1-1을

만들었다. 이후 치열했던 두 팀의 공방전은 박주영의 머리로 상황이 정리됐다. 후반 32분 프랑스수아 모데스토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공을 박주영이 헤딩으로 골을 만들 어냈다.

특유의 기동 세리머니로 득점의 기쁨을 감추지 않은 박주영의 활약에 2008년 이후 2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 탈환을 노린 리옹의 꿈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프랑스컵 16강은 2월 10일과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1)이 속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FC는 이날 열린 세인트 존스톤과 원정 경기에서 4-1로 크게 이겼다.

발목 부상 중인 기성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셀틱은 승점 41점으로 한 경기를 더한 레인저스(승점 48)의 뒤를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 5라운드서 '톱10' 도전

북호프클래식 4R 공동 17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시즌 첫 톱 10 진입을 노리던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이 추축했다.

나상욱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라킨타 골프장(파72.7천 60야드)에서 열린 북 호프 클래식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에 발목이 잡혀 3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중간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찍어낸 나상욱은 전날 공동 9위에서 공동 17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10위 라이언 무어(미국·19언더파

269타)와 격차는 2타에 불과해 26일 PGA 웨스트 골프장의 파머 코스(파72.6천950야드)에서 열리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순위를 끌어 올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

10번홀에서 출발한 나상욱은 전반에 버디 2개, 보기 1개를 겹쳐 1타를 줄인 뒤 3번홀(파3)과 파5번과 6번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9번홀(파4)에서 다시 1타를 잃어 버리는 바람에 순위를 더 끌어 올리지 못했다. 장타자 버바 왓슨(미국)과 신인 알렉스 프루(미국)가 나란히 23언더파 265타를 찍어내며 공동위선수로 나섰고 공동 3위 빌 하스(미국)와 팀 클라크(남아공·이상 22언더파 266타)가 1타차로 추격했다. /연합뉴스

여자복싱 김주희

슈퍼챔피언 등극

세계 여자프로복싱 3대 기구 통합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있는 프로복서 김주희(24·거인체육관)가 WIBA(여자국제복싱협회) 선정 '슈퍼챔피언'으로 뽑혔다.

거인체육관 정문호 관장은 25일 "WIBA로부터 김주희가 라이트플라이급 슈퍼챔피언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WIBA는 상임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김주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화) ▲09/10 V리그(도로공사 : KT&G(16 : 40·SBS스포츠·KBS n 스포츠) (LIG손해보험 : 삼성화재)(18 : 40·KBS n 스포츠) ▲09/10 프로농구(전차랜드 : 오리온스) (18 : 50·MBC ESPN) (KT&G : 삼성) 27일(수) ▲09/10 프리미어리그(불튼 : 버리) (04 : 50·SBS스포츠)

이영표 19경기 연속 풀타임... 소속팀 사우디리그 우승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무데에서 활약하는 이영표(33·알 힐랄)가 정규리그 전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소속팀의 우승에 앞장섰다.

이영표는 25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알 하잠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정규리그 19라운드 알 하잠과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

을 모두 뛰며 2-0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영표는 개막전부터 19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하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23명에 들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렸다.

A매치 110경기에 출장해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이영표는 4강 신화를 창조했던 2002년 한·일 대회와 2006년 독일 대회에 이어 3

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전망이다. 알 힐랄은 전반 41분에 터진 예사 알 메하니의 선제골과 후반 27분에 나온 나와프 알 아베드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시즌 16승2무1패(승점 50)를 기록한 알 힐랄은 2위 알 사바(승점 37)와 3위 알 이티하드(승점 36)와 간격을 크게 벌여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축구협 내일 기술위원회

대표팀 명단 등 논의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오전 11시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기술위원회(위원장 이회택)를 열어 축구대표팀으로부터 해외 전지훈련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 달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대표 차출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허정무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참석해 지난 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스페인 말라가로 이어진 20일간의 전후 결과를 기술위원들에게 보고한다.

대표팀은 잠비아와 첫 경기전에서 2-4로 졌지만 핀란드(2-0 승)와 라트비아(1-0 승)를 차례로 꺾고 세 차례 A매치에서 2승1패를 기록했다. 허정무 감독은 월드컵 기간 베이징 올림픽 차출 루스텐버그의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붙을 나이지리아 등 상대국 전력 분석 내용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2월6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대회 엔트리 23명도 논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대표팀은 30일 목요일 구수센터에 다시 모여 동아시아연맹대회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가나·알제리 4강행

네이션스컵 8강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2010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8강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가나는 25일(한국시간) 앙골라의 카빈다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아사모아 기안의 결승골에 힘입어 개최국 앙골라를 1-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가나는 4강에 선착해 지난 1982년 대회 이후 28년 만에이자 통산 다섯 번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D조에서 독일, 세르비아, 일본과 16강 진출을 다투는 가나는 전조전 격인 네이션스컵에 주축 미드필더 마이클 에시엔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우승 후보다운 저력으로 앙골라의 추격을 뿌리쳤다.

조반부터 강한 공세를 기선을 잡은 가나는 전반 16분 기안이 크와드 위 아시모아의 패스를 받은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1-0 리드를 끝까지 지켜 2회 연속 4강 진출을 확정했다.

4강에 합류한 알제리는 가나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단 한변이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은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관 시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꼭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을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가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초급	32부터 매주 (주)14-17시 (화)19-22시	(화)19-22시	150000원	230-7700-3
평생교육원	관상학심화	35부터 매주 (목)요일(15주)	(화)19-22시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초급	310부터 매주 수요일(15주)	(화)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심화	311부터 매주 (목)요일(15주)	(화)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조기등록 120-129까지 등록시 해당수강료 10%감면
정기등록 2, 1-2, 19까지, 동강대 정기등록 125-227까지

등록방법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공용기판 입금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가지에서 배송할때에도~ 창고에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기차 5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차 사용합니다
- 배 전기로 약 5,000원 정도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최신의 배터리로 사용되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속의 교체비를 인성적인 A/S가 가능합니다.

장기적라 농업용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가저리대출, 1년 기차 5년 상환, 연리 3%
- 즉전시 40km/회(1차재량 200kg)

일한 유류 운반차 유틸리티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지급 가능

한라셀텍(주) H-P 010-9468-3282

대표·성별 분구 (행정동별 16-07-29)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	전 20대(2000년 기준) 행정동별 인구